

# 모두를 위한 영화 현장을 꿈꾸며



## “모두를 위한 영화 현장을 꿈꾸며”

- ‘영화계 내 성폭력’, 개선책을 고민한다

글 : 이화정 <씨네 21> 기자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 년 3 월 10 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 Contents

---

## 01

들어가는 말 / 1

---

## 02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 3

---

## 03

해외 영화 현장을 살핀다 / 5

---

## 04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아라 / 9

---

##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0월 19일이었다. 오타구\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시작으로 문단, 미술계, 영화계 등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고발하고 자정하기 위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영화계 역시 움직임을 보였다. 10월 21일부터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한 영화계 내 성폭력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감독 남순아, 배우 김꽃비를 주축으로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인 '찍는페미'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영화계 내 성평등을 고민하는 모임을 진행하며, SNS에서는 '#그건\_영화\_아니라\_폭력이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 영화계 성폭력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찍는페미의 회원은 2천여 명에 달한다. 영화주간지 <씨네 21>의 영화계 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특집, 기획 기사도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진행된 스페셜 대담 '영화계\_내\_성폭력'에서는 영화감독, 현장 스태프, 배우, 홍보마케팅사, 수입사, 영화평론가, 영화과 학생 등 영화계 각 직군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해 영화 관련 종사자들, 혹은 영화계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닥친 성폭력 피해 사실과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반복, 재생산되는 영화계의 구조적 문제가 거론됐다.

현장의 이야기들이 전가한 충격을 시작으로, 영화계 각 단체도 이 문제를 공감하고 각각 보다 나은 현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영화계는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을까? <한국영화>는 현재 영화계가 가진 대안책에 대해 질문해봤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더불어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마련된 스웨덴의 모범 사례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해외 영화계의 성폭력, 성평등과 관련한 실태는 어떠한지를 현지 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검토<sup>1</sup>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어 올 1월 16일에는 <씨네 21>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주최한 긴급포럼 '그건 연기가 아닌 성폭력입니다'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다룬 사건은 다음과 같다. 여배우 A가 영화 촬영 과정에서 당한 폭행 건에 대해 상대 남배우 B를 고소했다. 여배우 A는 촬영 전 15세 관람가의 휴먼 멜로 장르로 노출신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촬영 당일 현장에서 애초의 이야기가 바뀌었다. 상대 남배우 B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속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인 여배우 A는 강제추행으로 남배우 B를 고소했다. 1심 법원은 남배우 B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배우 마리아 슈나이더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 촬영 당시

<sup>1</sup>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영진위 하은선 미국 통신원, 김민채 프랑스 통신원, 김현아 브라질 통신원, 김유현 아르헨티나 통신원의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베드신을 강행한 것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현장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사례도 적지 않다.

포럼 당일, 주최 측 예상과 달리 참석 인원이 상당해 행사장은 물론 복도에까지 서서 경청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배우 곽현화가 참석해 영화 <전망 좋은 집>(2012)에서 자신이 촬영한 노출 장면이 본인 동의 없이 부가판권시장에서 공개·유통된 것에 대해 감독 이수성과 벌인 법정 공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곽현화는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여자 연예인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후 찍는페미의 회원이 되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민우회의 정술아 사무국장은 “이날 자리에서 영화계 단체뿐 아니라 포럼에 참석한 이들 모두 이 문제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영화계 구조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이후 용인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리도 노조,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단체와 협력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A는 현재 민우회의 도움하에 항소를 진행 중이다.

그는 항소심이 시작되는 3월 8일에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후 성폭력 사건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서다.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화가 되고,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민우회뿐만 아니라 여러 영화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건수 자체가 거의 없다고 입 모아 말한다. 실질적인 상담 창구가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건화가 돼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더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 소위 말해 ‘연예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힘들게 신고를 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민우회 정 사무국장은 “법정으로 가면 당시 현장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데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 사람들, 즉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들 모두 영화계에 몸담은 이들이다 보니 증언을 하는 걸 꺼린다. 증언을 한 경우도 막상 법정에 가서는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해서 동조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한다. 지난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쪽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맞고소할 경우 피해자는 위축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소송에서 성과를 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OO\_내\_폭력 해시태그 운동 등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얘기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영화 현장이라는 특수성이 범죄를 용인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도 문제다. 영화 촬영을 하는 공간 역시 ‘예술’을 떠나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민우회는 신고 창구를 몰라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올해는 성폭력 상담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 2.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씨네 21>은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을 주시하는 동시에 여러 영화인 단체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가장 발 빠른 반응을 보인 건 (사)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감독조합)이다. 감독조합은 지난해 11월 11일 영화계 성폭력 공론화와 관련한 감독조합의 입장을 발표하며 조합 내에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공표했다. 성명서에는 “피해 사례에 대해 부끄러움과 함께 근절을 위한 고민을 나누었다”는 말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조합원 중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질 경우 공개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제명’하는 등을 토대로 한 실천 방안이 포함됐다. 성명서에서 밝힌 입장의 이행 방향 중 하나로, 최근 감독조합은 조합 내 기구로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했다. 조합원이 뜻을 모아 관철한 표준계약서 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문제라는 인식에 뜻을 모아서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운영위원회 중 하나인 성폭력방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철저하게 검토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처벌 등의 판단을 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23일 열린 5차 감독조합 정기총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장호, 정지영, 봉준호, 최동훈, 장철수, 김경묵, 김희정 등 감독 113명이 참석했다. 감독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번 교육을 비롯해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협조적이며, 관심 역시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감독조합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감독들도 교육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밴드에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영화인모임의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점을 크게 공감하고 있다. ‘영화계\_내\_성폭력’ 문제를 다룬 <씨네 21> 1079호 특집 기사 중 ‘이제 영화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영화인들이 말한다’를 통해 ‘문제를 고발하고 상담해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이은혜 간사는 “여성 영화인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려는 회의의 개최”와 “여성가족부 등 타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간사는 “현재 성폭력 관련한 상설기구를 여성영화인모임 안에 준비하는 중이다. 조만간 이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단, 지난 몇 달간 해결 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의 고충도 없지 않아 보였다. “영화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조사 등은 어느 단체 하나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영화 단체와 함께 이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자는 뜻을 모으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씨네 21> 대담과 긴급포럼 ‘그건 연기가 아닌 성폭력입니다’ 등에 참석하며 영화계 성폭력 문제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앞선 대담에서 “오랜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100년간 영화만을 생각했고, 앞선 5년간 노동을 생각했으며, 이제 막 성(性)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이야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최근 영화노조 차원에서의 변화나 대책 마련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안 위원장은 “눈에 띄는 만한 큰 변화는 아직 없다. 그러나 확실히 신고 접수가

그전보다는 늘어났다. 아무래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고는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게 아닐까 싶다. 최근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꽤 오래전 일인데도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화계 포럼 등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간 포럼에서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만 해왔다면 이제 성폭력, 여성문제,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책자를 만드는 일이다. 찍는페미 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착수하기 시작했고,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때 배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계획 중인 또 다른 노력 가운데 하나는 영화계 기술 부문, 즉 촬영과 조명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모임 준비다. "촬영, 조명팀 여성 스태프를 만나 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미 실행 중인 성폭력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1 차 교육이 전반적인 고충 토로의 과정에 그쳤다면, 이제는 영화 현장이라는 특수성에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스태프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어나가려면 스태프들과 이 문제에 관해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는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이슈화되기 전 이미 단체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내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울독립영화제의 경우 "영화제 스태프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영화 심사 과정에서도 여성 쿼터를 지향"해 왔다는 점 등 고무적인 실천 방안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2 월 6 일 서울독립영화제에선 한독협 성평등위원회가 기획한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영화계 성평등 환경을 위한 대안 모색'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신희주 감독의 발제로 성폭력으로 인해 영화계의 커리어를 포기한 여성 영화인 실태 파악, 가해자의 직업별 분류 등이 발표됐다. 신 감독은 "문화, 예술계 대다수 성폭력이 교수와 학생, 작가와 지망생 관계 등 위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영화계 성폭력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며 "이는 한국 영화산업 현장이 스태프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계급화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영화 현장의 도제 시스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증거"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화노조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영화인모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설기구 설립을 통한 성폭력 피해 영화인 지원, 영화계 성폭력 공론화에 대한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의 입장 발표, 각종 영화제의 정기적인 성폭력 실태조사 시행 등이 제안됐다. 지난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번 달 초 총회의 안건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지연 한독협 사무국장은 "그사이 사건 접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평등과 관련해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언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난해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협회 사업과 결부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전 예방, 성평등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영화 촬영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반에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예정이다. 먼저 학교에서 공부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북을 전달하고,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 스태프 수가 많고, 스태프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의 참여도 활발한 국제영화제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각 영화제의 특수한 상황을 공유해 차별화된 교육 세부방침을 만들 계획을 민우회와 함께 논의 중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에 진행해온 성평등위원회의 영화인 교육은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작년에는 여성학자 손희정의 참여로 젠더 이슈 강의를 한 데 이어 올해도 또 한 차례 같은 주제로 강의를 기획 중이다. 연간 1 회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 2017 년 한독협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남순아 감독이 위촉됐다.

### 3. 해외 영화 현장을 살핀다

영화계 내 성폭력 이슈가 제기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화인이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방침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였다. 스웨덴영화진흥원(Swedish Film Institute, 이하 SFI)에서는 영화제작 지원에 남녀 감독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 영화계에 영화계 성평등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1963 년 문을 연 SFI 는 시나리오 기획개발부터 기금 마련, 배급과 해외 수출입, 글로벌 공동제작 등을 관여하는, 한국의 영진위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영화학교, 시네마테크, 필름커미션을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영화의 수출을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의 비중을 늘리는 일 등이 SFI 의 전통적인 중점 과제였는데, 2013 년 안나 세르네르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염두에 둔 영화 만들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반에는 여성감독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반발하는 의견이 거셌지만 편견은 하나둘 사라져갔다. SFI 는 여성 영화인이 투자(펀딩)를 받고 배급할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첫 번째 작품 이후 차기작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 영화인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05 년 19%에 불과했던 여성감독은 2015 년 기준 44%로 증가했고, 해외영화제에서도 여성 영화인이 참여한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 SFI 는 여성과 남성이 50 대 50 으로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과 더불어 이 문제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책이 가장 잘 마련된 곳은 미국이다. 배우조합, 방송인조합, 작가조합, 프로듀서조합, 스태프연합 등 노동조합(Union) 중심으로 영화제작 시스템이 구축된 미국의 영화촬영 현장에서 조합원은 기본계약서에 따라 안전과 처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할리우드의 경우 감독 한 명이 아닌 감독, 제작자(스튜디오), 주연배우의 권한이 똑같으며 철저히 사전합의제로 운영된다. 영화인은 노조가 정해놓은 계약 조항에 의해 근무 시간, 임금, 촬영 조건 등의 보장을 받는다. 미국영화방송제작자연합(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은 각 노조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데, 기본계약서 Basic Agreement 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수계약서 Nudity Rider Agreement 다. 누드(노출)나 섹스 장면을 촬영해야 할 경우, 제작사는 배우의 노출과 관련된 조항을 사전합의해 정리한 특수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특수계약서의 규정 조항은 국내 영화 현장에서도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어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제작사는 배우(혹은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에 첫 번째 인터뷰 혹은 오디션에 앞서 이 역할에 노출 혹은 섹스 장면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또



오디션이나 인터뷰에서 배우에게 완전한 노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출 혹은 섹스 장면을 촬영할 경우 촬영 세트에 프로덕션과 업무적으로 관계없는 이의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 ③ 배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작자가 노출 혹은 섹스 장면을 스틸로 촬영하지 않아야 한다(누드나 섹스 장면 클립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노출 장면에서 배우의 대역은 촬영 전 노출 수위가 설명된 서면동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계약 조항에는 누드, 세미 누드, 러브신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 배우가 특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노조와 미리 이를 검토해볼 것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제작사가 영화 촬영 도중 동의를 철회하는 배우에게 계약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따돌림 혹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촬영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 및 성희롱 폭력에 관한 방침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촬영 현장을 포함한 모든 작업장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이 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한 '차별과 희롱에 대한 방침'을 보면 '무관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처벌을 가하는 정책이다. SAG-AFTRA 에 가입한 배우는 물론이고 고용주, 에이전트, 대리인, 계약인, 외주 관리인, 판매상 등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연방법규 2-C 에 의거해 차별 혹은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SAG-AFTRA 의 고용평등 및 다양성 부서(EEO & Diversity Department)로 즉시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을 대가로 하는 성희롱과 적대적·위협적 작업 환경을 조장하는 성희롱으로 구별된다. 미국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16 세 미만이면 가중 처벌하고, 12 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그러나 할리우드 역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할리우드 내 여성 스태프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제작비가 큰 대작의 경우 여성 스태프 수는 더 적다.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및 인종차별 금지법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을 당한 스태프가 고충을 토로하면 "법정에 가면 (승소해) 보상금은 받겠지만 다시 제작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최근 <맨체스터 바이 더 씨>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케يسي 애플렉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애플렉은 2010 년 다큐멘터리 <아임 스틸 히어 I'm Still Here>를 촬영하면서 프로듀서 아만다 화이트와 카메라 감독 마그달레나 고카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애플렉이 촬영 당시 여성 스태프를 '암소'라고 부르고, 다른 남성 스태프를 시켜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 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반성의 기미 없는 애플렉이 수상한 데 대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자인 맷 데이먼이나 그의 형 벤 애플렉 등 영향력 있는 남성 영화인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적인 할리우드의 권력관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프랑스 영화계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한 세부지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차원에서 사건이 다뤄진다. 특별한 예방지침이 없는 이유는 영화를 다른 직종과 구별해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형법(성희롱 관련 처벌)과 노동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은 징역 2 년, 3 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지위를 남용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죄가 가중돼 징역 3 년, 4 만 5 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영화계에서만 통용되는 예방지침은 앞서 언급했듯이 따로 없지만, 영화 단체협약과 배우 노동조건을 명시한 단체협약에는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 2012 년 1 월 9 일 체결된 영화제작에 관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는 정치적 입장·신앙·출신 사회·인종·성·가족관계 등에 의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퇴사 조치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차별금지 조항과, '고용·임금·교육 등 모든 사항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된다'는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배우의 노동조건을 명시한 단체협약의 경우, 배우의 신체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특수한 촬영 환경에 대한 것을 명시한 조항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촬영하거나 촬영 자체가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제작사는 관련 보험을 들 의무가 있다', 또 '계약 기간 동안 배우는 신체나 목숨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영화계(2014 년 기준)의 경우 공인된 노동조합 수만 1,500 개(비공인까지 합치면 약 3 천 개)에 이른다. 아르헨티나배우연합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영화산업노동조합 SICA-APMA 과 같은 노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먼저 영화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비중은 37.4%, 이중 여성 주인공 및 공동 주연 비율은 30.4%에 그친다. 촬영 현장의 여성 비중은 더 낮는데 감독이 10%, 시나리오작가 22%, 프로듀서는 19.6%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4.3 대 1 명에 불과하다. 여성 스태프의 평균 비중은 24.3%다. 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노동시장의 여성 비율인 40.4%보다 15.1%나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 배우는 아르헨티나배우연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배우와 제작자 간의 합의는 아르헨티나배우연합에서 승인한 계약서에 기초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연기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작성돼 있어야 한다. 또한 예상하지 않았던 신(노출, 베드신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배우 활동에 관한 법령 27203>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공증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령 제 1 조에는 '이 법은 캐릭터 연기를 수행하는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사실이거나 가공된 이야기, 또는 재연, 대리, 모방과 같은 행위에 한한다'고 적시돼 있고, 제 2 조에는 적용 대상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 연출에 영향을 받는 자(제 1 조에 명시돼 있는 연기자), ㉡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무대 연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 ㉢ 합창 단원(노래, 춤, 코러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 ㉣ 그룹 혹은 개인으로 안무를 통해 춤을 표현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2 항(노동 연기 계약) 제 7 조에 따르면, 제 1 조에 명시된 목적에 의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합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따른 계약에 나온 금액 이상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 배우가 아닐 경우 '영화 촬영 혹은 작품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계약과는 다른 촬영이 이루어지는 예가 적지 않다. 배우라는 불안정한 직업의 특성상, 원치 않지만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촬영을 강요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성보다 여성 영화인에

대한 처우가 낮은 편이라 이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다. 아르헨티나배우연합의 표준계약서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과 같은 사항은 '옵션'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장에서 감독의 권위에 의해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흥행, 관객의 이목 등을 고려해 합의 없이 삽입한 노출신, 베드신 등은 여배우에게 난제를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상당한 편이다. 여배우 안토넬라 코스타는 최근 마리아 슈나이더의 사건을 접한 후 자신 역시 수년 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고 페이스북에 털어놓았다. 코스타는 영화의 목욕신이 감독판에만 사용된다는 조건으로 촬영에 임했는데, 부가판권인 VHS 에서도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또 사전에 협의 없이 영화에 필요한 장면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압적으로 촬영을 명령했고, 수많은 스태프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해 굴욕적이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브라질의 경우 성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탓에 오락 프로그램이나 정규 방송에서 국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준의 묘사도 통용된다. 그러나 매일 15 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고, 매 12 분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공공안전부 조사 보고(2016 년 통계)가 있을 정도로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편이기도 하다. 배우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포함)에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계약서가 대개 프로덕션/감독, 즉 고용주 측에서 작성해 배우나 스태프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내용 대부분은 수익 발생 시 상업적 보상, 개런티 지급 지연 관련 사항, 촬영 시간 등에 관련된 항목 위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 측에서 제공한 문서 초안에 의견을 덧붙여 제시하더라도 이에 관해선 구두로 의견만을 나누는 선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연기 지도를 위해 신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를 논하는 것도 계약서(문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역시 구두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다. 즉, 피고용자인 배우나 스태프 입장에서는 촬영 도중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문서화해 보장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감독이 촬영 계획이나 연기 스타일 등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 여배우가 가슴 노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려다 내부 촬영 스태프의 언질을 듣고 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여배우의 경우 '사전에 적극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껴 대개가 수긍하는 편'인 반면, 남배우는 '필요하다면 계약사항에 폭력 부분이나 연기 디렉팅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한다'고 조사돼 계약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드러났다. 브라질 영화계 내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2016 년을 기준으로 20%인데, 이는 2015 년의 14%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 촬영 현장은 남성 감독과 스태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농담이 포함된 대화를 공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또한 여배우, 여성 스태프 들은 이에 대해 유별난 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 같은 게 존재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폄하하거나, 핵심 포지션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브라질 영화계에서는 유명 여배우와 남배우가 자신이 겪은 성적 학대/언어폭력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공개·공유함으로써 여기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영화계 내 성폭행, 성차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감독이나 학계,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기도 하다. 그중 'Mulher no cinema(Women in the cinema)'가 대표적인데, 여기엔 약 3 만여 명의 브라질 영화계 여성 관계자가 가입해 있다. 이들은 브라질뿐 아니라 세계 영화계의 여성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자극과 인식 변화를 꾀한다. 다만 이 활동은 아직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4.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아라

다시 국내로 눈길을 돌려보자. 영진위 역시 현재 최근 불거진 이슈에 공감하고, 지난 1 월부터 '영화산업 내 성범죄 실태조사 및 대응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한인철 팀장은 "영화계 내 해시태그 운동, <씨네 21> 등 언론의 지속적인 기사화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영진위가 보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기구는 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확인을 통해 효율적이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2 차 가해를 예방하고 산업 내 완전 척결을 위한 범영화계 차원의 '종합 대책 기구' 마련 필요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주력하는 것은 영화산업 내 성범죄 실태조사다. 영화계 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한다. 상업·독립·예술·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작품이 모두 포함되며, 학생 작품 등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영역도 조사 대상이 된다. 개봉 기준 3 년 이내 작품에 참여한 적이 있는 스태프, 배우 등 참여자, SNS 나 언론 등에서 거론된 성폭력 등의 사례자에 대해 설문조사, 면접, 현장 방문 등을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전화(1855-0511)도 개설된다. 영화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행 예방을 위한 안내 가이드 책자도 제작한다. 영화계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안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는 방향을 구상 중이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도 추진 중에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각종 대규모 영화 행사 시 홍보 물품 배포 및 유관 사업 실시,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상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사건 상담, 법률 상담, 소송 지원(기구 의결 시), 정신 및 육체 치료 지원책을 계획 중이다. 사건 상담은 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성폭력 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하며, 법률 상담은 '영화산업 공정환경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 구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유선 및 의견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해 범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에서 의결 시 소송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화산업 내 성범죄 의료지원단'(가칭) 및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등과 연계해 정신 및 육체 상처에 대한 치료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원사업 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만약 상기 지원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됐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지원사업 대상자는 촬영 전에 제작 참여자 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교육비 영진위 지원)한 이수 확인서 및 제작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인철 팀장은 대응기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이 문제만큼은 행정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단체와 협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연계를 통한 범영화계 성범죄 대응기구(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각 단체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기구가 설립되면 성폭력 등 성범죄 소송이나 상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 및 단체를 자문위원 형태로 포함해 격월 정기회의를 갖고, 현안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영진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협의를 통해서 현장과 영화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구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목표다. 올해를 영화산업 내 성폭력 근절 원년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sup>2</sup>고 전했다.

끝으로 현장 영화인들이 영진위에 바라는 지점도 덧붙인다. 먼저 영화계 임금, 고용환경 조사 등의 실태조사가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 노동 환경과 관련된 조사는 전무한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성평등과 관련해 '백텔 테스트' 같은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제작 중 성폭력 등의 사건 유무 표시 등을 통해 현장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스웨덴 영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 스태프에 대한 기초 조사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가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각성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구조적 변화를 위한 의견도 있었다. “입소문과 평판을 위주로 한 스태프 채용보다 공고를 통한 공식적인 채용을 일반화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진위 차원의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2016 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여성감독의 추이가 표시된 것, '여성감독, 여성주의'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sup>2</sup> 영진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사업에서도 <영화현장 성평등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 진행할 계획이다.